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각 부서 새출발 열기로 가득

● 교구위원회 ●

다락방장(남자)을 위한 세미나

교구활성화를 위해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다. 18일(화)에는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성도들간의 교제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역을 위해 남자 다락방장들만의 세미나를 가졌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서 소그룹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다락방장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강의를 듣고 토론과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의 질적, 양적인 성장에 없어서는 안될 다락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21일(금) 오후 6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한 달에 한 번 연합다락방 모임을 갖되 남자 다락방장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 두시간에 걸쳐 토의했다.

● 예배위원회 ●

예배위원 월례회

성도들이 경건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항상 애쓰고 있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강당 담당위원, 차량부 위원들이 기도회 겸 월례회로 20일(목)에 교회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미흡했던 점들을 살펴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좀 더 열심을 품고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예배위원들 모두는 늦게 오시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고의 정성이 아쉽다고 한다. 그리고 보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내위원과 차량부 위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초등부 ●

전체교사회

20일(목)에 부장인 박철훈 장로 댁에서 전체 교사회로 모였다. 새

해 초등부 성장 목표와 교사지침을 살피고 겨울성경학교에 관한 의논을 했다. 특별히 초등부에서는 주일 오후 어린이 학교를 기획하고 있다. 찬양, 성경동화, 그림그리기, 글짓기, 성경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익히며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훈련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 소망부 ●

신년회 및 정기 교사회

신년회 및 1월 정기 교사회를 부장인 홍정호 장로 댁에서 20일(목)에 가졌다. 올해의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마음을 모아 간구하였다.

● 선교위원회 ●

실행위원 모임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기존의 전도위원회와 선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내 전도와, 해외선교 그리고 특수선교 등을 담당하게 된 선교위원회는 위원장인 오정수 장로 댁에서 20일(목)에 실행위원 전체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종윤 목사는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본문으로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그의 개인적 기록은 전혀 없으나 마음을 끌어들이 복음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된 마게도냐 사람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치 말고 복음을 위해 불꽃을 일으키며 선교의 촉발제가 되어 민족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계속된 실행위원회의에서는 역동적인 선교활동을 펴기 위해 위원회의 목적(purpose)과 목표(goal)에 따른 영역별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70인 전도대, 방송·통신선교, 문서선교, 학원선교, 군선교, 농어촌 전도 등 특수전도활동을 개발하고 다른 선교회와 협력함으로써 이를 발전시켜나기로 했다. 또한 현지 지도자를 초청하여 자국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교육해 온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를 올해도 잘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선교사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검토하고 선교사와 그의 가족, 현지의 선교활동 등을 위해 기도했다.

목회자동정

- 이종윤 목사는 1월 24일(월) 오전 7시 「사랑의 연수원」 이사회를 소집한다.
-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 동문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을 1월 24일(월) 정오에 이종윤 목사의 초청 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진다.

교우동정

- 정무균 성도 (1교구) / 1월 17일(월) 성도들의 기도 속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다. 수술경과는 좋으며, 입원실에서 요양 중이다.



'94 첫 세례식

지난 수요일, 12월 18일 시에 올해 첫 세례식을 거행했다. 21명의 학습자, 11명의 세례자, 유아 세례를 받은 4명의 가족과, 10명의 입교자, 그리고 한 명의 개종자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들을 지켜 항상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창세기강해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셋의 계보

(창세기 5장 1 ~ 20절)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은 자칫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1. 기록된 이름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열된 이름들은 구원사에 핵심이 될 인물들만 나열한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하여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므로 연대기적인 기술(記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역사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점으로 약 6천년의 역사가 흘렀으니 안식을 의미하는 수인 '7'에 해당하는 이천년대에는 안식, 즉 천국이 도래함으로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세대주의적 해석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의 이름은 에녹과 노아 두 사람 뿐입니다.

창세기에는 '계보'라는 말이 11번 계속 나옵니다(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9; 37:2). 그 계보란 곧 족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표본이 되거나 나쁜 짓을 했어도 우리에게 교훈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말3:16). 이 말씀은 아담부터 노아까지만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계20:11 ~ 15). 그러므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 말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5장 전체는 족보장으로서 이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며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남은 자들

창세기 4장에서는 라멕의 세 아들 이름이 여섯 세대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아홉 세대로 나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의 세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가인의 후예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셋의 후예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 즉 악한 자가 세상에는 더 많으며 구별된 성도의 수는 애초부터 소수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가 비록 적다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양에 있지 않고 질적인 것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수가 비록 적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끄는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수가 비록 적고 그들이 행한 것이 보잘 것 없어 보여도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남은 자(remnant)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름의 상호연관성

본문에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담이 일백 삼십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셋도 아담의 형상

을 닮았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다음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3절에 언급된 셋에게 나타난 아담의 형상은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셋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죄인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셋의 후예가 노아이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두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씻기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가문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셋의 후손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성과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서 찬성하며 그 뜻대로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다시 보라

사람은 자기 등을 볼 수 없다. 자화자찬의 도가 지나치면 코메디가 되는 법이고 자기비하를 지나치게 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리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웃을 시기나 멸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말씀이다.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원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국가 전체에 비극을 자초하게 되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다. 이제 우리의 영적 눈을 다시 한 번 뜨고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다시 보도록 하자. 존재하는 인물로서만이 아니고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것이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가장 큰 사랑

본 의 아니게 상황에 휩쓸려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고통의 수렁에 빠져서 무진 고생을 하는 경우, 우리는 황당하다는 말을 쓴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민감한 나머지 냉철한 비판과 고민없이 그 조류에 부화뇌동하다보면 「25시」의 요한 모리츠처럼 목적과는 반대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선인들은 가르쳤다.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이 복잡하기만 한 오늘날,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그 궤도를 향해 그침없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더구나 궤도가 될만한 참으로 가치있는 일을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피가 용솟음치는 청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진실을 제시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 힘든 일은 바른 삶을 사는 자라야 바른 삶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갖 부정들이 폭로되고 있는 이 시대에 기성세대가 무슨 낱으로 '청년들이여, 똑바로 살아라'고 외칠 수 있는가? 설사 그럴싸한 논리로 설득한들 누가 따를 것인가.

가치와 진실이 아무렇게나 내다버린 쓰레기가 되었고 전력 투구할 궤도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깔려있듯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복음이다. 대영백과 사전의 외판원들도 여느 세일즈맨과는 달리 완벽한 책을 당당하게 힘주어 가면서 팔고 있는데 하물며 무소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전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 가야할 궤도가 분명히 있고 삶의 참다운 가치가 있으며 암울한 현실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의 깃발을 당당하게 안겨 주자. 그래서 황당한 삶에서 목적있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여 기쁘고 감사한 인생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인 것이다.

■ 더불어 사는 삶 ■

예수님 때문에 거저,
즐거기만 한 생활서울시로부터 봉사상을 수상한
김명숙 권사

‘스마일 권사’로 잘 알려진 김명숙 권사님이 지난 연말 서울시로부터 봉사상을 수상했다.

하나님께서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은사를 주신 것같이 그것을 물어줄 수 없기에 소외된 곳을 찾아 웃음을 나누어 주고자 했을 뿐이라시는 권사님은 부군이 소천하신 후, 여생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레크레이션 지도자 훈련을 받으셨다. 레크레이션 지도자 협회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구청에서 실시한 시험에 당당히 합격, 자원봉사자로서 5년간을 한결같이 무의탁 노인들이 거하는 복지회관과 양로원등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엔돌핀’이 샘솟도록 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려 하면 거부하던 이들도 이제는 같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를 몇 번씩 갈아타야만 하는 왕복 4~5시간의 길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다니신 권사님의 성실함이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다.

수상하던 날 국민가요로 일컬어지는 ‘만남’을 열창하시고는 회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다는 권사님. “꽃 달고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서보니 기분은 좋더라만...”하시며 마땅히 할 일을 한 것 뿐이니 「순례자」에는 신지 말라고 부끄러워 하셨다. 이제는 꽤 유명해져서 선의은행, 기아대 책본부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에서 부르는 곳도 많아서하셨다고.

“내려 거저, 예수 이름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서 합네다.”라고 여전히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권사님. 항상 찬양을 통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제 삶을 의미있게 살도록 사망까지 주셨으니 날마다 기쁘고 감사할 뿐이라시는 권사님의 웃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기를 기도해 본다.

◆ 생활 속의 이야기 ◆

벌·금·유·감

김은희 (청년부)

벌칙금

- 무단횡단 / 3,000 - 8,000원
- 거리에 침 뱉거나 방뇨하는 행위 / 25,000원
- 세치기 / 25,000원
- 금연구역에서의 직연 / 10,000원
- 인도가 아닌 곳에서 차를 잡는 경우 / 3,000 - 5,000원(야간에 사고가 많이 남)
- 기초질서 위반(물품장매, 호객행위, 인근 소란행위 등) / 즉심 (보호실 조치)

억 울했다.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건너곤 하는 길인데...’, ‘남들도 다 건너는데...’

‘무단횡단’이라는 죄목으로 5,000원짜리 딱지를 떼게 되었을 때, 첫 감정은 억울함이었다. 그러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고지서를 건네받고 하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억울함은 수치심으로 변해갔다.

생각해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불법을 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마음이 차분해 오면서 성도의 생활이 철저히 정결하기를 원하실 하나님 앞에서 5,000원 벌금 덕택에 얻게 된 큰 교훈을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벌칙금 내역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알게 되었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범하는 그리스도인 답지 못한 생활에 다음과 같은 벌칙금을 정한다면 어떨까?

- 전화를 친절치않게 받음 / 5,000원
- 부모님께 공손치 못함 / 10,000원
- 하나님과 매일 만나기로한 약속을 어김 / 25,000원
- 감사치 못하고 불평을 토로함 / 3,000 - 5,000원(그 정도에 따라)
- 마음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음 / 즉심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함 / 25,000원
- 남의 흉을 봄 (참소, 한담함) / 10,000원

“오, 주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 24)”

생명의 원천인 강과 하천을 지키자

김영한 (협동목사·대학부 지도)

'94년의 시작부터 식수오염 사태로 낙동강을 수계로 하는 영남지역 1천만 시민들이 10여 일째 식수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91년 폐놀사건 이후 3년만에 또다시 식수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낙동강 오염이 주범이 되는 대구지역의 금호강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진동의 폐수에 의하여 강원도 탄광촌에서 나오는 물과 다름없다고 한다. 마산, 창원 등 경남지역 주민들은 암모니아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집단적으로 구토, 설사 증세를 일으키는 피해를 당했다. 특히 낙동강 하구인 부산지역에서는 수도물의 악취가 더욱 심하다고 한다. 더욱이 환경처 장관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낙동강 수도물에서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수도물 악취소동에 이어 발암성 물질 검출 사실에 접한 국민들은 식수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다. 이번 발암물질의 추출은 우리 수질 관리 기술이 여태까지 벤젠과 톨루엔을 검출, 또는 정화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8가지 성분을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121개 성분을 권장항목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38개 성분의 검사항목만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질검사항목으로 85개의 물질, 영국은 56개, 일본은 46개 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질관리 당국은 선진국에서는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벤조피렌, 디디티, 니켈, 안티몬 등 유해물질들을 우리가 과연 마시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문제의 벤젠이나 톨루엔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탈기 시설을 이용하여 물 속에서 공기를 주입시켜 날려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수질 당국은 염소만 잔뜩 부어 넣는 재래식 정수방법에 머물고 있으며 뒤늦게 염소가 벤젠과 반응해 악취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염소투입량을 줄이는 소동을 벌였다. 일본관광협회가 떠낸 93년 6월 1일자 한국관광안내

에는 “수도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네랄 워터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정도다.

전문인들은 보다 구조적인 오염을 말하고 있다. 강물을 사용하여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과 가축과 물고기도 오염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다고 한다. 발암성물질들은 플랑크톤에 흡수된 후 물고기와 조개류를 거치면서 백배 이상 농축되고 이같은 상태로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이 먹을 경우 물 속 함유량의 천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미량의 오염물질이 수년 또는 수십년에 걸쳐 몸속에 축적되어 암의 발생이나 돌연변이, 기형화의 형태로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우리 몸의 65%는 물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은 강과 하천이다. 이번 낙동강 오염 사태는 정부 수질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환경행정의 낙후에서 비롯된 것이다. 폐수처리장이 건설되어야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폐놀이나 톨루엔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상수원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비전문가가 대부분인 환경시설 종사자를 전문인으로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산불 감시원처럼 수질감시원을 두어 오염이 심한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방류하는 공단을 감시하고 고발하며 자기 실천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도물 오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신고를 받아 폐수배출업소와 행정당국의 직무태만을 고발하는 등 감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다. 생활 오수와 각종 축산 및 산업 폐수를 마구 흘러보내 우리 산하와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자가 바로 다름아닌 폐수배출업체에서 각 가정에 이르는 시민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과 하천을 지키는 환경의 파수꾼으로 창조질서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집회장소 일람

집회실과 교사실을 일부 이전했다. 중등부 교사실이었던 104호실을 주일 오전에는 탁아부가, 오후에는 청년부가 각각 집회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기존의 청년부 집회실이자 예배위 원실로 사용하던 5층의 집회실은 중등부 교사실로, 3층 교구간사실은 고등부 교사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특pecially 탁아부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동안 아기를 맡아 돌보고 있으니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용하시기를 바란다.

모든 부서가 마음껏 예배하고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학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학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가 마련되도록
2.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도록
3.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4.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09:00
	II부 오전 11:00
	III부 오후 02:00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05:00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00
	II부 오후 07: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0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05:30

■ 교회위치

